파노니 “난 불독 스타일 … 공격 피칭 기대하세요”

KIA 새 외국인 투수 오늘 KT 위즈전 선발 등판 타자 소크라테스와 토론토서 함께 뛴 경험 음식 잘 맞고 시차 적응 끝나 팬들에 능력 보여주겠다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토머스 파노니가 7일 KBO리그에 첫발을 내디딘다.

김종국 감독은 6일 KT 위즈와의 경기에 앞서 “파노니의 (취업)비자가 나와서 선발로 나오게 됐다. 원래 로니 윌리엄스 자리였기 때문에 내일 나온다. 한승혁은 일요일(10일)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KIA는 양현종을 시작으로 한승혁-파노니로 선발진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생겼다.

다음 주 일정까지 고려해서 양현종이 하루 밀어 6일 출격하고, 준비한 대로 7일 파노니가 들어선다.

새 출발을 앞둔 파노니는 “등판을 앞두고 기분이 좋다. KIA에서 뛸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마운드에 올라가서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데뷔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KBO리그는 중계를 통해 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메이저리그가 닫혔을 때 KBO는 정상적으로 리그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 야구팬에게 희망이 됐었다.

파노니는 “KBO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KBO 경기를 지켜봤었다. 선수들이 경쟁심이 많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최지만과 승부도 해봤고, 한국에서 뛰는 폰트(SSG), 알포드(KT), 플럿코(LG)를 알고 있다. 라모스(전 KT)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KBO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열성적이고 경쟁심도 많은 리그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소크라테스와는 3년 만의 재회다. 그는 2019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뛴 경험이 있다.

파노니는 “같은 팀에 있었는데 인성이 좋은 선수다. 하루 빨리 회복해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날 순간을 그렸다.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지만 마음은 편하다.

파노니는 “동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환영해줬다.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 박동원하고도 친해졌다. 먼저 다가와서 내 피칭 스타일 물어보고 사인도 맞춰보면서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며 “음식도 좋다. 한국 바베큐가 좋았고 매일 김치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 매운 것도 잘 먹는다. 시차 적응도 끝났다. 시차 적응에 4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 밤에 가장 잘 잤다”고 이야기했다.

시차 적응도 끝난 만큼 마운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앞서 파노니는 미국에서 6이닝 92구를 소화하고 왔다. 실점도 볼넷도 없었던 만큼 자신감은 넘친다.

파노니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불독처럼 싸우는 스타일이다. 도망가지 않고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스타일이다. 모든 구종이 자신 있다. 직구, 슬라이더, 커터가 가장 자신 있다. 커브도 좋은데, 올해 슬라이더를 처음 배웠는데 지금은 커브보다 더 잘 던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가 6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또 “KBO리그에 컨택 타자가 많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야수에 의지하면서 플레이하겠다.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던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지금 팀 상황이 좋지 않지만, 로테이션에 합류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한다”며 “KIA에 팬들이 많다고 들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게 이닝을 끌고 가고 싶다. 공격적으로 승부하면서 나의 모든 구종을 사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리그 40주년 기념 올스타전 유니폼 공개

KBO 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한 올스타전 유니폼이 공개됐다. 〈사진〉

KBO는 16일 잠실구장에서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을 연다. 출범 40주년을 맞아 ‘레트로 컨셉’의 드림 올스타(KT, 두산, 삼성, SSG, 롯데), 나눔 올스타(KIA, LG, 키움, NC, 한화) 유니폼이 준비됐다.

이번 올스타 레트로 유니폼은 기존 올스타의 상징인 파란색(드림)과 빨간색(나눔)의 색상을 메인으로 활용했으며, 원년 프로야구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풀오버(티셔츠형) 스타일, 두꺼운 3색 소매 밴드 무늬, 상의 정면의 흰색 띠 둘레 등 과거 유니폼을 재해석해 디자인했다.

올스타전 레트로 유니폼은 어센틱과 레플리카 2가지 종류로 올스타전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잠실야구장 팬페스트존에서 판매된다. 올스타전 이후에는 KBO 온라인 마켓(www.kbomarket.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팬들과 만나게 되는 올스타전은 15일 ‘올스타 프라이데이’ 행사로 막을 연다. 이날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레이스 등이 진행되며 16일에는 오후 3시 팬사인회와 함께 본격적인 올스타 무대가 시작된다.

야구장 밖 팬페스트존에 마련된 경기장에서는 드림, 나눔 올스타 각 2명씩 총 4명의 선수와 팬들이 함께하는 베이스볼5 미니 게임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베이스볼5는 별도의 장비 없이 고무공 하나로 즐기는 5대5 길거리 야구 게임이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선수와 팬이 함께 달리는 ‘신한은행 SOL 슈퍼레이스’가 진행된다.

각 구단의 선수 2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팬과 보호자 2명 그리고 구단 마스코트가 함께 팀을 이뤄 낙하산 레이스, 점핑 디딤돌, 오뚜기 허들 등 총 6개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

또 이날 구단 단장, 감독, 선수 등 162명의 전문가 투표와 팬 투표로 선정된 ‘레전드 40인’의 최다 득표 4명이 최초 공개된다.

KBO는 경기 전 공식행사에서 레전드 4명에 대한 시상을 갖고 기념 유니폼, 모자, 트로피를 수여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나눔 올스타와 드림 올스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클리닝 타임 종료 후 롯데 이대호의 은퇴투어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축구대표팀, 17년 만의 우승 향한 ‘담금질’

동아시아컵 대비 훈련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나서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17년 만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지난 5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한 대표팀 선수 23명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첫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은 회복·체력 훈련을 소화하고 패스, 트래핑 등 기본기를 점검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이후 각각 5명으로 꾸려진 세 팀을 모두 한 경기에 투입한 후, 한 팀이 두 팀의 합동 공격을 막아내는 방식의 미니게임도 진행했다.

팀별로 공격과 수비가 수시로 바뀌면서 압박 강도와 진행 속도도 일반 경기보다 빨랐다.

콜린 벨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줄곧 선수들에게 빠르게 공을 처리하고 공·수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민아(인천 현대제철)도 훈련장 구석에서 별도 재활 훈련에 매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지소연(수원FC)을 비롯해 조소현(토트넘), 이영주(마드리드 CFF) 등 유럽파 선수들까지 포함된 24인의 동아시안컵 출전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금민(브라이턴)의 합류는 불발됐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해외파 선수들은 구단의 허가가 있어야 참가할 수 있는데, 이금민은 소속팀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6일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대비 첫 팀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지난 5일 문미라(수원F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으로 낙마하며 현재 23인의 인원만이 확정된 상태다.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열린다.

한국과 개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대만 등 4팀이 풀리그를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 일본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23일 중국, 26일 대만과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광주FC, 23경기 만에 ‘승점 50’ … K리그2 우승 향해 진격

광주FC가 ‘광주 스타일’대로 우승 결승선을 향해 달려간다.

광주는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아론과 엄지성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5경기 만에 승리를 장식한 광주는 23경기 만에 ‘승점 50’ 고지를 밟았다.

같은 날 경기에 나선 2위 대전하나시티즌도 안산 그리너스에 2-0 승리를 거뒀지만, 1위 광주는 승점 9점 차를 유지했다.

모처럼 광주다운 공세가 펼쳐진 경기였다.

전반 12분 선제골이 기록됐다. 이으뜸이 왼쪽 측면에서 띄운 공을 골대 앞에 있던 아론이 몸을 날려 발끝으로 터치했다. 이내 골망이 흔들리면서 아론의 K리그 데뷔골이 만들어졌다.

전반 27분에는 엄지성이 환호했다.

오른쪽에서 공을 뺏은 마이키가 문전에 있던 엄지성에게 킬패스를 했다. 엄지성은 침착하게 오른발로 낮게 공을 때리면서 부천의 골대를 갈랐다.

광주는 후반 34분 페널티킥골은 허용했지만 4분의 후반 추가시간까지 잘 버티면서 승리 행진을 재개했다.

앞선 24라운드 김포FC와의 경기를 통해 첫선을 보인 새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가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 등 광주는 12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장식했다.

결정력이 아쉬웠지만 광주 만의 스타일을 다시 보여주면서 잠시 주춤했던 우승 질주의 스피드를 높이게 됐다.

‘승장’ 이정효 감독에게도 만족스러운 경기가 됐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의도한 대로 선수들이 잘해줬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신하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줬다. 힘든 경기였는데 끈끈하게 잘 버티고 찬스를 만들어줬다”며 “공격적으로 가자는 광주의 축구를 잘 보여준 것 같다. 감독으로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끝까지 찬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다. 찬스에서 결정을 지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홈에서 5경기 만에 이겨서 큰 승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감독의 주문 대로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승리를 합작했다.

특히 아론은 ‘헌신’에 어울리는 플레이로 박수를 받았다. 듬직하게 광주 진영을 지킨 아론은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선제골도 장식했다.

이정효 감독은 “다재다능한 선수다. 몸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흥미를 가지고 재미 있어 한다. 목표,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해줬는데 정말 잘해줬다”며 “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적 우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이 잘해줘서였다”며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야기했다.

득점 세리머니 대신 몇 차례 아쉬운 탄성에 그쳤지만 새로운 공격수 산드로는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이정효 감독은 “앞선 김포전에서도 봤지만 확실히 레벨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수고, 팀을 위해서 많이 뛰는 선수다. 찬스를 만들어내고,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 많은 골을 넣을 것 같다”며 “산드로가 열심히 해주면 허율, 엄지성, 마이키 등 다른 선수들한테도 시너지 효과를 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선수들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흔들림 없이 2022시즌을 달리고 있다. 특정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잘 짜인 광주 시스템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동계 때부터 약속한 부분이 있다. 1, 2군 나누지 않고 단체로 똑같이 훈련하고, 미팅을 한다. 선수들이 이 자리에서 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다. 선수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루할 수도 있는데 미팅도 많이 한다. 1주일에 4번 짧게 하는데 선수들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좋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